

‘오징어게임’ 오영수 골든글로브 연기상

한국 배우 최초... 작품상·남우주연상 불발 할리우드 보이콧 속 ‘오겜’ 관계자들도 불참

‘간부 할아버지’ 오영수(78)가 ‘오징어게임’으로 한국 배우 최초로 골든글로브 연기상을 품에 안았다. ‘오징어 게임’은 작품상과 남우주연상 후보에도 올랐지만, 2개 부문 수상은 불발됐다.

오영수는 10일(한국시간) 열린 제79회 미국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TV부문 남우조연상을 받았다.

오영수는 올해 세 번째로 골든글로브 남우조연상에 도전하는 ‘석세션’의 키에라킵킨을 비롯해 ‘더 모닝쇼’의 빌리 크루프, 마크 듀플라스, ‘테드 라소’의 브렛 골드스타인 등 후보들을 제치고 수상했다.

한국 배우가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은 것은 처음이다. 2020년 ‘기생충’, 2021년 ‘미나리’도 이루지 못한 성과다. 한국계 배우인 샌드라 오, 아파

피나가 연기상을 받은 적은 있지만, 한국 드라마나 한국 배우가 주연으로 출연한 영화가 연기상 후보에 오른 적은 없었다.

TV드라마 남우주연상 후보에 올랐던 이정재 수상은 아쉽게도 불발됐다. 이 부문상은 ‘석세션’의 제레미 스트롱에게 돌아갔다.

‘오징어 게임’은 작품상 후보에도 올라 한국 드라마 최초 수상이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가 나왔으나 ‘석세션’에 트로피를 넘겨졌다.

작품상과 남우주연상은 수상이 불발됐지만, 후보에 오른 것만도 한국 영화·드라마 초유의 기록이다.

비영어권 작품에 배타적인 성격이 강한 골든글로브는 지난해까지 대사의 50% 이상이 영어가 아닌 경우 외국어 영화로 분류한다는 규정을 뒀다.



제79회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남우조연상을 수상한 ‘오징어 게임’의 오영수. 연합뉴스

이 때문에 2020년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 2021년 미국 영화 ‘미나리’(정이삭 감독)는 작품상, 연기상 등의 후보에 오르지 못했다. ‘외국어 영화상’에 만족해야 했다.

TV부문도 지금까지 비영어권 작품이 후보에 오른 경우가 없었다.

이날 시상식은 골든글로브를 보아오는 할리우드의 싸늘한 분위

기 속에서 조촐하게 치러졌다.

골든글로브는 백인 위주의 회원 구성과 성차별 논란, 불투명한 재정 관리에 따른 부정부패 의혹으로 논란에 휩싸인 상태다.

이런 분위기를 감안한 듯 오영수, 이정재, 황동혁 감독 등 ‘오징어 게임’ 관계자들도 이날 시상식에 참석하지 않았다.

시상식도 생중계 없이 홈페이지에 수상 내역만 공지됐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인 ‘오징어 게임’은 456억원의 상금을 차지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벌이는 서바이벌 게임을 그린다.

한편 극영화 부문 작품상은 제인 캠피온 감독의 ‘파워 오브 도그’가 차지했다. ‘파워 오브 도그’는 감독상과 남우조연상까지 더해 3관왕에 올랐다.

뮤지컬·코미디 영화 부문에서는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첫 뮤지컬 연출작인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가 작품상을 받았다. 연합뉴스



12일 개봉하는 여성 액션 영화 ‘특송’.

연합뉴스

‘박소담 무슨 배역이든 진짜처럼’

액션 영화 ‘특송’ 내일 개봉

“여성 액션 영화에 킥해서 기획하게 됐는데 여기까지 왔네요. 살리조 시어런의 ‘매드맥스’ 같은 영화요.”

오는 12일 개봉하는 ‘특송’을 연출한 박대민 감독은 10일 화상 인터뷰에서 영화를 구상하게 된 배경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특송”은 돈만 주면 무엇이든 배달해주는 드라이버 은하(박소담 분)가 예기치 못한 추격전에 휘말리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은 작품이다. 사실상 원톱 주연으로 나선 박소담은 카 체이싱을 비롯해 몸싸움 장면까지 다양한 액션을 보여준다.

박소담은 데뷔 후 첫 액션 연기를 위해 두 달간 무술팀과 함께 내내 연습에 매진했다고 한다. 부산 로케이션 촬영 당시에는 숙소로 온 호텔에 따로 공간을 빌려 합을 맞추기도 했다.

박 감독은 “본능적으로 연기를 잘하지만, 완벽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며 “이래서 좋은 연기를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이어 “속도감에 가장 포인트를 맞췄는데, 속도감은 계속 달리는 데서만 나온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서 변화를 주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흥행 중인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과 ‘경관의 피’의 기체가 무섭다면서도 “‘특송’ 만이 가진 장르적 쾌감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연합뉴스

를 위해 두 달간 무술팀과 함께 내내 연습에 매진했다고 한다. 부산 로케이션 촬영 당시에는 숙소로 온 호텔에 따로 공간을 빌려 합을 맞추기도 했다.

박 감독은 “본능적으로 연기를 잘하지만, 완벽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며 “이래서 좋은 연기를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이어 “속도감에 가장 포인트를 맞췄는데, 속도감은 계속 달리는 데서만 나온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서 변화를 주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흥행 중인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과 ‘경관의 피’의 기체가 무섭다면서도 “‘특송’ 만이 가진 장르적 쾌감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연합뉴스

1월부터 뜨거운 ‘컴백 대전’

엔하이픈·모모랜드 등 컴백 최강창민은 솔로 앨범 발표

K팝 시장에 대한 관심이 큰 가운데 새해 첫 달 인기 아이돌 그룹부터 실력과 솔로 가수들까지 잇달아 컴백해 주목된다.

10일 가요계에 따르면 ‘차세대 보이그룹’으로 꼽히는 그룹 엔하이픈은 이날 오후 6시 정규 1집 리패키지 앨범 ‘디멘션 : 엔서’(DIMENSION : ANSWER)를 발표한다. 지난해 10월 정규 1집 ‘디멘션 : 디레마’(DIMENSION : DILEMMA)를 낸 이후 3개월 만의 컴백이다.

가요계에서는 정규 1집으로 데뷔 1년 만에 ‘밀리언 셀러’를 기록한 엔하이픈에 주목하고 있다. 이들의 리패키지 앨범은 지난 7일 기준 선

주문량이 63만 장을 넘어섰다.

음악계 최고 권위의 상으로 꼽히는 그래미(Grammy)는 최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2022년 반드시 들어야 하는 앨범 30선’(30 Must-Hear Albums In 2022) 기사에서 엔하이픈의 앨범을 그중 하나로 꼽기도 했다.

7인조 그룹 미라소년은 오는 12일 새 미니앨범을 발표한다.

전작 ‘스플래시’(Splash) 이후 약 3개월 만에 내놓는 ‘마블러스’(Marvelous)에는 동명의 타이틀곡과 펌퍼 전원이 작사에 참여한 ‘일곱 페이지’(Dear My Friend) 등이 담길 예정이다.

그간 무대 소화 능력과 프로듀싱 실력으로 주목받은 펜타곤은 이날 24일 새 미니앨범 ‘인바이트’(IN:VITE U)를 발표할 예정이다.

2022년 새해 컴백을 준비하는 걸



14일 가수 나티 나타샤와 디지털 싱글 ‘야미 야미 럽’을 발표하는 모모랜드. 연합뉴스

그룹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프로미스나인은 이날 17일 오후 미니 4집 ‘미드나잇 게스트’(Midnight Guest)를 발표한다.

모모랜드는 ‘야미 야미 럽’(Yummy Yummy Love)을 통해 새로운 매력을 뽐낼 예정이다.

이달 14일 발표하는 디지털 싱글에는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가수 나

티 나타샤가 참여했다. 나티 나타샤는 모모랜드의 신곡 음원과 뮤직비디오를 비롯한 앨범 전 과정에 함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돌그룹뿐 아니라 솔로 가수들의 컴백도 하나둘 예고돼 있다.

동방신기의 최강창민은 이날 13일 두 번째 미니앨범 ‘데블’(Devil)을 발표한다. 연합뉴스

슈퍼주니어 규현, ‘연애소설’ 발표

사계절 프로젝트 마무리

그간 계절별로 새로운 노래를 발표해온 슈퍼주니어 규현이 겨울 감성을 담은 ‘연애소설’(Love Story)을 내놓는다.

소속사 레이블SJ는 규현이 이날 25일 오후 6시 각 음원 사이트를 통해 네 번째 미니앨범 ‘연애소설’을 발표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 7월 발매한 싱글 ‘투게더’(Together) 이후 6개월 만에 내놓는 신보다.

규현은 2020년 7월부터 계절의 감수성을 노래로 발표하는 ‘프로젝트 : 계절(季)’을 진행하며 ‘내 마음을 누르는 일’(Daystar), ‘마지막 날에’(Moving On), ‘커피’(Coffee) 등의 곡을 발표해 왔다.

이번 음반은 사계절 프로젝트를 마무리하는 앨범이다.

규현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한 영상에서 “드디어 프로젝트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겨울 앨범이 발매된다”며 “귀 녹을 준비하세요”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KBS1	KBS2	MBC	JIBS/SBS	EBS1
6: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광장 7:35 KBS 뉴스광장 제주 7:50 인강광장 8:25 아침마당 9: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9:45 KBS 뉴스 제주 10: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1: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11:20 필도탐상(재)	6:00 생활의 발견 스페셜 6:10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7:00 KBS 대안민중 리포트 1부 8:00 KBS 대안민중 리포트 2부 9:00 KBS 아침 뉴스타임 9:20 국가대표 와이프(재) 10:00 인강광장 스페셜 11:00 꽃 피면 달 생각하고(재) 11:50 통합뉴스룸 ET	6:00 MBC 뉴스투데이 1부 6:25 MBC 뉴스투데이 2부 7:20 MBC 뉴스투데이 제주 7:50 TV매거진 해피플러스 8:50 두 번째 남편(재) 9:30 930 MBC 뉴스 9:45 기분 좋은 날 10:45 이 맛에 산다 11:15 헬로키키즈 글로벌 동물 뉴스 11:45 짝꿍구드대	6:00 모닝와이드 1부 6:25 모닝와이드 2부 7:25 JIBS 아침 뉴스 7:40 모닝와이드 3부 8:40 맨 인 블랙박스 스페셜 8:50 좋은 아침 9:55 SBS 10 뉴스 10:30 설마나는 오늘 11:00 꾸러미 탐구생활 11: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7:30 뿌로로 동화나라 8:00 딘동딘 유치원 8:30 열마 개구리 9:40 우리집 유치원 12:10 바닷가 사람들 14:10 EBS 다큐포럼 15:25 클래식 16:00 마사와 꿈 16:30 딘동딘 유치원 18:00 생활승 워터진 해결단 19:00 레이디마그 19:50 극한직업
12: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12 13:00 KBS 네트워크 특선 세상다반사 13:50 송다 14: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2 14:30 KBS네트워크특선 비 부러더 15:05 동행 16:00 시사간전 17: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17:30 탐나는 제주	12:15 생생정보 스페셜 12:55 디큐매터리 3일(재) 13:5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재) 15:00 KBS 뉴스타임 15:10 인앤(재) 15:30 TV 유치원 16:00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16:50 백중원 클라쓰(재) 17:50 통합뉴스룸 ET	12:00 12 MBC 뉴스 12:20 호적메이트 스페셜 13:50 2시 뉴스 외전 15:20 뽀뽀뽀 좋아좋아 15:55 기분 좋은 날(재) 16:55 5 MBC 뉴스 17:10 출발! 비디오 여행 스페셜	12:00 SBS 12뉴스 12:25 JIBS 뉴스 13:50 신발 벗고 돌싱포맨(재) 14:00 뉴스브리핑 16:00 화합기행 17:00 SBS 오뉴스 17:35 JIBS 뉴스 17:50 JIBS 특집 대테러특강대 707	제주 CBS FM 93.3MHz 90.5MHz 7:00 김다기의 아침뉴스 7:20 김현정의 뉴스쇼 9:00 그대곁에 김성훈입니다 12:00 CBS 뉴스 12:05 천왕이 있는 숲길 13:30 생명의 생 15:00 CBS 뉴스 17:05 시사매거진 제주 18:00 CBS 저녁종합뉴스 18:25 한판승부 21:35 라디오간전 22:05 김은영의 가스펠 아워
18:00 6시 내고향 19:00 KBS 뉴스 7 제주 19:40 보물섬 20:30 국가대표 와이프 21: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9 21:35 KBS 뉴스 9 제주 22:00 UHD 역사스페셜 22:50 더 라이브 23: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라인	18:30 2TV 생생정보 19:50 사랑의 퀘비기 20:30 노가라 좋아 21:30 꽃 피면 달 생각하고 22:50 유럽발의 문제아들	18:05 테마기행 길 19:05 두 번째 남편 19:40 MBC 뉴스데스크 21:00 호적메이트 22:30 PD수첩 23:30 밤과 후 설렘 스페셜	18:50 생방송 투데이 19:50 SBS 8 뉴스 20:30 JIBS 8 뉴스 21:00 온가족의 세상에 이만일 22:00 그 해 우리는 23:10 신발 벗고 돌싱포맨	7:00 KCTV 뉴스 8:00 KCTV 시청자세상 8:30 탐나는 보이스 9:00 KCTV 뉴스 9:30 지식강연소 금쪽같은 제주 물 10:20 KCTV 건강톡톡 13:10 펫초고 명명토크 15:20 금쪽같은 제주 물 17:00 KCTV 뉴스 18:00 KCTA 소상공인 커머스

이 프로그램은 방송국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TBN 제주교통방송 FM 105.5MHz 서귀포시 FM 105.9MHz

오늘의 운세 11일

김종상 지단(호리) 작명역학 원장
경기도 평곡원 교수(010-5233-6136)

36년 심사숙고와 필요한 때, 즉흥적 결정은 후회를 낳는다. 48년 쓸데없는 욕심은 마음만 다치고 고민으로 가득 차니 금물. 60년 재물욕심이나 이성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현명한 처신과 정도를 가져라. 72년 손님이 방문하거나 외출할 일이 생긴다. 활동 범위를 넓혀라. 84년 만남이 있으며 미팅도 주선됨.

42년 자식이나 후배 부하직원에 의한 재물손실수가 있으니 관리 철저. 54년 친구나 동료와 다툼이 있다. 음주 절제. 66년 열정이나 강한 의욕으로 활동성은 왕성하나 안전사고나 다름 조심. 78년 취업이나 직장내 구설이 있어 스트레스를 받는다. 90년 기록된 문제를 가지고는 재고경험한다.

37년 문제가 있다면 친구나 이웃에 요청하면 길. 49년 계약이 성사되고 가정에 웃음꽃이 핀다. 내가 먼저 배려를 하라. 61년 노력한 만큼의 결과가 오니 최선을 다하면 결과가 좋다. 73년 추진하는 일이 지체되고 부진하다. 폭넓은 대인관계 필요. 85년 이성관계에 즐거움이 있으며 동료와의 모임이 갖는다.

43년 한마디 말이 상대 마음을 상하게 하니 언행자제. 55년 기분이 좋다고 내 마음대로 행하면 실수를 연발하거나 재물지출이 발생. 67년 옛사귀이나 부모와의 의견차이로 스트레스가 있다. 79년 직장이나 이성관계가 있어도 내 맘을 채워주지 못한다. 91년 위장에 탈이 오니 건강검진 필요.

38년 남과 더불어 의는 또는 협조할 일이 발생한다. 내가 할 일이 생긴다. 50년 월급생활자는 야근이 생기거나 술자리를 동석하니 운전은 자제. 62년 자녀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강해진다. 형제간 대화 필요. 74년 사업확장은 이득이 되지 못한다. 재물관리 철저. 86년 집안내 도움 줄 일이 생기거나 봉사할 일이 생긴다.

44년 뒷바라지나 부모님의 일로 외출을 하게 된다. 56년 추진하는 일에 성과가 있으며 부하직원이나 자식의 도움을 받는다. 68년 직장문제나 부부사이에 불화가 올 수 있다. 80년 취업이나 업무에 대한 활동력이 늘어나고 좋은 소식이 있다. 92년 내 고집만을 주장하기 보다 친구의 의견도 수렴. 계획을 수립하라.

39년 명예를 얻으면 자금이 지출되고, 과욕은 관재수를 얻는다. 51년 부친이나 배우자로 인해 마음이 불편한 일이 생긴다. 63년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거나 자식의 문제로 고민을 하게 된다. 75년 구매충동 또는 소꿉친구 지출을 하게 되고 돌아다니고 싶어한다. 87년 갑작스런 결정은 후회해 따른다.

45년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말고 전력을 다하라. 57년 송사문제나 관재구설. 건강이 약해질 수 있으니 매사를 심사숙고. 69년 배우자나 남자문제도 자금이 지출되고 하는 업무에 문제가 생긴다. 81년 집안에 관심이 오니 부모님께 안부전화나 찾아 보는 것이 마음 편하다. 93년 건강이 약해지니 조심.

40년 충동적인 생각이 일을 끄르치니 냉정함이 필요하다. 52년 적극적인 용기와 실천으로 내 의지대로 행하고 추진하라. 64년 동업은 불리하다. 재물손실 주의. 76년 취업이나 직장문제에 걸리고 이익이 있으니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하다. 88년 무리한 추진은 뜻하지 않는 안전사고로 부모에게 근심을 준다.

46년 초대를 받거나 중책이 주어지기도 한다. 58년 가까운 사이 일수후 예의를 갖추어 인정을 받는다. 70년 재물이 길하니 활동하라. 뜻하지 않는 귀인의 도움이 있다. 82년 타인의 인정을 받아 좋으나 피곤이 누적돼 힘이 든다. 재충전의 휴식 필요. 94년 매매나 문서상 변화가 오게 된다.

41년 너무 신중해서 기회를 놓치는 일이 생긴다. 53년 남 앞에 너무 나서면 주변의 시기와 미움을 사게 되며 때론 적이 되기도. 65년 귀인의 도움으로 활동력이 커지고 일이 성사된다. 77년 자만심과 독단은 벼들을 멀어지게 할 수 있으니 겸손하라. 89년 나태함이 곧 의욕상실로 갈 수 있으니 게으르며 불리하다.

47년 귀가 늦으면 불화가 찾아오니 오늘은 일찍 귀가. 59년 인화가 취득, 승진 명예 등 온으나 지금 지출을 동반한다. 71년 배우자나 뒷바라지 일을 수렴하고 추진하면 무방하다. 83년 취업이나 하고자 하는 일에 걸린 소식이 있다. 적극적인 마음의 자세 필요. 95년 활동할 일이 생기고 모임이 있으니 즐겁다.